



# 환경과 인드는 환경보전의 기초

인천협의회 남동구지회 이경수 회장(엔겔하드아시아퍼시픽한국(주) 환경팀 차장)

**지** 난 2월 인천협의회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각 구별 7개지회로 재편성했다. 7개의 지회 중 쑥쑥 성장하고 있는 남동구지회, 초창기 20개의 회원사로 시작해 현 80개사로 발전시키기까지 환경관련 프로페셔널인 이경수(엔겔하드아시아퍼시픽한국(주) 환경팀 차장)지회장이 있었다. 활기차고 배짱있는 그를 만나 환경에 대한 남다른 철학과 숨어 있는 열정을 들어본다.



인천협의회 김갑석(우)회장과 지회의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2월 28일 남동구지회 발대식 때 “많은 망설임 속에 지회장직을 역임한 만큼 최고의 지회가 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라고 말한 이경수 지회장은 7개월만에 그의 말대로 최고의 지회를 만들었다. 회원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실이라며 늘 지회사업을 검토하고 있다는 그의 환경철학은 ‘우리 몸이 환경’이다. ‘맑은 정신과 깨끗한 육체가 환경보전을 위한 첫걸음이다’라는 것.

남동구지회가 발족하자 그는 우선 지역의 특성을 살려 튼튼한 몸을 만들기 위해 회원사 확대에 들어갔다. 자료가 미흡한 가운데 뼈대를 만들고 지회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파하며 발로 뛰어다녔다. ‘이왕 말은 것이면 제대로 하자’라는 신념, 사명감을 가지고 다닌 결과 그를 믿고 따라주는 회원들이 많이 늘었다. 거기에 힘을 얻어 200개사의 회원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다.

‘뜻을 함께 하는 회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이 된다’고 말하는 그는 지회의 발전을 위해서 취약한 회원사를 중심으로 환경오염방지시설 운영관리방법에 대한 기술 지원을 확대하고 환경마인드 조성을 위한 교육과 현장 실무교육을 통해 차원높은 관리인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외에도 환경보호 캠페인을 통한 환경의식고취, 민·관합동으로 자율환경 감시단 구성, 타 단체와의 연계로

폭넓은 활동강화, 기술정보의 신속한 보급을 위한 각분 야별 공부 등 그의 지회사람은 지칠줄 모른다.

조직을 통한 체계적인 환경의식을 보급하는 일이 그의 몫이라고 말하는 이 지회장은 꼼꼼히 계획해서 실천하는 진정한 환경관리인의 한명이다. 지난 82년 환경관련 NGO인 한국녹색회의의 평회원을 활동하면서 맺게된 환경과의 인연, 실질적인 환경업무를 시작하고자 앵겔

환경투자에 있어 아낌없는 후원자인 손영록 대표이사와 함께...



하드아시아퍼시픽한국에 환경관리인으로 입사하게 되었다. 건축을 전공한 그가 실질적인 환경관리업무를 지속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자료가 부족하고 무엇보다 정보와 기술이 부족했다.

이러한 그의 과거가 협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다니

는 일을 하게 된 바탕이 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는 난관에 부딪칠 때마다 환경관리업무에 긍지를 생각하고 열악한 현장조건을 개선해 나갔다.

그는 환경경영의식이 있는 외국기업이었으나 투자만큼은 신중해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지금의 첨단환경시스템의 운영까지 수많은 사연이 있었다. “내 몸이 아프면 다른 기능도 원활하지 못하다”며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는 아픈곳을 치료해야 한다”고 말한다. 사람 몸의 건강은 요도와 항문에 있다고 할만큼 기업건강의 척도는 환경이란다.

환경의식 없이 좋은 제품 만들기는 어렵고 기업마인드가 고객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환경팀 가족과 함께...(아래)

그래서 환경에 대한 투자만큼은 과감히 추진해 나갔다. 한번의 기안과 투자계획서를 제출할 때마다 사표를 쓰는 각오로 임했다고 한다. 실제 그는 사직 이후의 생활을 위해 자동차정비 자격증을 따기도 하고 가족의 생활력을 위해 포장마차를 시작하기도 했다고 한다.

유달리 환경투자만큼은 물러서지 않는 고집탕인지 그가 관리를 맡으면서는 고발이 한건도 없었으며, 환경설비에 투자한 만큼 근무환경 및 기업이미지가 높아졌다고 한다. 앞서는 환경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이경수 지회장은 컴퓨터 및 영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다. 시대를 앞서가기 위해서는 배움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는 게 그의 철학이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환경관련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는 환경관리인들을 위해 설비시스템 및 기술관련 글을 쓰고 싶다고 한다. 현장에서 익히는 실질적인 기술과 배움이 사장되는 것은 큰 손실이라며, 환경관리는 복잡적이고 다양한 만큼 능력을 배양해야만 진정한 관리인이 될 수 있다고 늘 말한다.

그를 믿어주고 이해해주는 앵겔하드 사장님과 남동구 지회 회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그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할 것이라며 다짐한다. 인터뷰를 마치며 한 명의 아름다운, 프로 환경관리인이 있어 그래도 아직은 깨끗한 환경속에 살고 있지 않나 싶다. ◀